





# 颶風一過後共產黨公判

# 重疊問題全部默殺

# 今日秘密裁判進行

여러가지문에도모조리묵살시키고  
발령금지한대로금일재판을진행해

조친공 숭안하고 고임공 신상 칭찬하고  
의공친(義公)을 신상하고 오후에  
일(一) 공(公)인(仁)을 신상하고  
하(下) 채공(在公)이, 일한(一)을 신상하  
지(止)한(止)데, 오후의 법(法)을 신상  
중(中)하기 그 지(止)업(業)한(한)도 작(作)하고  
거(거)거(거)하고 두(二)공(公)의 대(大)신(新)한(한)신(新)  
칭(稱)하고 아(亞)공(公)대(大)는 의(義)한(한)공(公)  
가(加)를 신(新)하고 비(非)일(一)한(한)의 재(在)관(官)  
소(小)한(한)사(事)를 신(新)한(한)다. 한(한)하(下)는 드(德)  
반(反)공(公) 한(한)주(周)제(制) 개(改)정(正)한(한)이(以)와

이날의공친(義公)과 그사(其)일(一)치(止)도(道)한(한)  
간(間)신(新)한(한)재(在)관(官)사(事) 할(行)리(理)하(下)  
오(五)후(後)지(止)라(來)도 재(在)관(官)장(將)이 공(公)가  
라(來)도 관(官)제(制)한(한)다(來)고 생(生)자(子)할(行)  
에(二)는 노(老)하(下)고 공(公)친(親)한(한)지(止)도  
모(無)는 노(老)하(下)고 대(大)신(新)한(한)사(事)일(一)  
에(二)피(皮)공(公)가(加)유(有)며 두(二)공(公)친(親)한(한)신(新)  
거(거)가(加)일(一)치(止)마(來)도 비(非)한(한)신(新)한(한)신(新)  
오(五)는 이날(一)의 새(新)생(生)이나 아(亞)하(下)는 방(防)  
관(官)을 부(付)하(下)지(止)아니(不)할(行)리(理)하(下)라(來)

二、警察官等正統服을勿論하고  
入廷치 못하고  
三、絛絛綱의據發問題는重大한  
項目이아닌은로考慮該地가  
있음  
四、特別隨從者는判例하(下)以(以)下(下)  
路上三三名을許한(한)다  
五、新聞記者及被告의隨從者의  
防衛는許可치안(不)受(受)協(協)立  
十七日에도  
十七日에도

『公開禁止』  
疑惑만 살뿐

법조계에 도를 펴는 이만다

공판의 공판부하를 덜어  
있다 하여 재판장이 공개습시  
있다 하여 모순되는 말에의  
가리킬 수 있다.

【憤慨한某辯護士談】

한걸의 일의와가 사형수형  
하도

延判하十五名判長二名을入  
延判하야廢刑하事

아직은 언제나 부상을 하리라  
가리키는 불수업인양 하후  
칠텐데는 부상을 할 판하지  
아니 하겠는가! 만약  
이 하되게 된다면 그 후  
예감지 중의 판도 판할  
판도 판의 가를 줄이나  
판사에게 가리키는 불수업

斷髮美人歌

學生、青年取調  
상해서오령안환으로부디  
唐荒한仁川署高等係

治愛維持訟違反事件公  
判傍聽禁止爲人延不  
能府御兼知相成度候

# 守城地方法

1

辯護、裁判側  
折衝案

# 寫真說明



## 正義府員活動

인쇄기계타를구입코저  
市內各署秘密裡戒嚴

[illegible]

# 朝鮮速記研究

심익월심일  
래서관에서  
조선속의술(朝鮮速記術)에대  
한한글취미를가진시내  
洪百鎰, 洪晉泰, 李南鍾, 金  
國, 李亨熙, 嚴正友

咽喉破傷。二呈  
事件取調

[illegible]

良民毆打巡查

起訴猶豫

구일에 피소유에  
친남구(親南谷) (金)이라든 손사(孫舍)를 얻고  
친창금(親昌金)을 구(求)하여  
불(不)을 보(報)다 하(何)기 바(巴)라  
상(上)세를 보(報)다 하(何)기 바(巴)라  
중(中)한 리(理)를 바(巴)치고 지(知)단  
모(母)고 소(訴)유(有) 하(何)는 모(母)다 하(何)

司法警察

◆ 경찰만으로는  
當局은

한(汗)의(汗)로 자관소관까지  
외에 경찰관제자들의 특별방  
금지물시켰는데 경찰만능  
으로 오직조선계인사정형판  
國)가임한조

警官傍聽問題  
一時協議三事

모든 것이 허공산당공판이 때  
모든 것이 허공산당공판이 때

[illegible]

漁船顛覆。二  
五十餘名慘沒

두시간이지내도한명도  
海州龍塘浦에

보가잇슴으로 해주도평창후에서는죽시 경비선(警

하며 원인이 도직할 수 없는 데 년 차에 한 생류심사령을  
그 조항이 없는 한 조항으로는 정부가 인사(人事)에  
그 조항이 없는 한 조항으로는 정부가 인사(人事)에  
그 조항이 없는 한 조항으로는 정부가 인사(人事)에

警察署出入하교

不能

自刀自

안해시키고  
경철서출이

지난날사일 오후여섯시경에 춘 일로침은

와 동계(同系)인것은 룰업업은  
사실로 그들과 그와 더불어  
살고 다 자기의 목을 원더 증상을  
있고 다시 흥부를 원더 자살코커  
나 만

것으로 장도 땀 흘려 개면 리만  
 엮어 사치한 남자의 정복(正服)  
 편가 잡지 않아서 말굽(馬蹄)을  
 수놓아 유색(有色)으로 그와 가리란  
 행을 한데도 시나 각에서 시  
 발각이 되어 저우 케지(周啓之)를 당하  
 시나 미정(未定)을 당하왔던 만  
 화려한 치마 하나하고 도마에  
 들리고 모양으로 장정(長丁)을  
 정을 할 수 없다. 춘천(春川)의 열  
 고와서

良民毆打巡查  
起訴猶豫

---

一刀呈兩名慘

**구일에기소유예**  
친남구에집삼금(全南求德金三  
金)이라는 소자가가솔을먹고서내  
김장은(金昌梅)꽃을다시하야고조  
부모를(父母)안아주니이것이

**부산목도명칭인**(釜山牧馬名稱)  
町)해안두근의(海邊 두근의)우하늘은 聖  
모(母)가(가)나(나)는(는)이(이)가(가)

**牧島日本**

[illegible]















